

【P5 - 11】

경남지역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육매체 활용현황

허은실, 이경혜*.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육에 있어 매체는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이해와 실천의지를 높이는 보조수단이다. 효과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평면적인 매체보다도 다양한 시청각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시 매체활용 현황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매체개발의 기초자료를 얻고자 2002년 동계 연수회(1월 15-16일)에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276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연령은 25-34세가 80.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근무지는 초등학교(66.3%), 경력은 6년 이상(56.9%)이 많았다. 영양교육의 실시비율은 전체의 94.2%로 매우 높았다. 실제로 행한 경험이 있는 영양교육 방법(9항목)을 조사한 결과 '가정통신문 배부'(88.8%)가 가장 높았고,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3.6%)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근무지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정통신문 배부', '담임교사를 통한 간접교육', '급식시 수시지도'에서 중·고등학교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p<0.01-0.001$). 경력별에서도 6년 이상이 근무지별과 같은 항목에서 5년 이하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경험을 보였다($p<0.05-0.01$). 영양교육 매체의 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인쇄매체'(94.2%)>'전시·게시매체'(66.5%)>'전자매체'(40.6%)>'영사매체'(8.3%)>'입체매체'(5.5%) 순으로 보유비율이 나타났고, 보유종류는 매우 적었다. 근무지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보유율이 높았고, '입체매체'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0.01$). 경력별로는 '전자매체'에서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매체의 활용경험유무에서는 특히 전자매체에서 보유현황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근무지별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인쇄매체', '전시·게시매체'에서 유의적으로 활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p<0.05$), 중·고등학교의 본격적인 급식이 최근에야 이루어져 이런 결과를 보였다고 생각된다. 경력별로는 '인쇄매체'에서만 차이를 보였다($p<0.05$). 선호하는 매체에 대한 조사결과 '인쇄매체'(31.7%)>'전시·게시매체'(29.8%)>'전자매체'(28.9%)순으로 나타났고, 구입을 원하는 매체는 '전자매체'(54.1%)와 '입체매체'(26.6%)로 나타나 선호매체와 차이를 보였다. 영양교육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항으로 '영양사의 교사화'(42.0%)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영양교육 방법론과 매체제작 방법에 대한 워크샵 참석 여부에 대해서 '참석하겠다'가 93.2%로 매우 높아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학교 영양사들에서 기존의 매체 이용은 대부분 평면적인 매체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는 매체의 활용도 낮은데, 이는 중·고등학교, 그리고 경력이 낮은 영양사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따라서 영양교육 고취와 더불어 매체이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모색이 필요하겠고, 구입을 원하는 전자매체와 입체매체쪽의 적극적인 개발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겠다.